

고려 삼별초의 제주 항전*

尹 龍 燮

요 약

본 논문은 1271년부터 1273년까지 제주도를 거점으로 한 삼별초의 대몽 항전을 전반적으로 고찰한 것이다. 제주에서의 삼별초의 항전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삼별초 항몽사의 일부로서 다루어져왔다. 본고는 이를 별도의 독립적 논문으로 정리하면서, 특히 제주라는 지역적 배경 및 삼별초 진도항전과의 성격적 차이에 유의하였다.

제주에서의 삼별초군은 내성과 외성 뿐만 아니라 해안을 둘러싼 長城을 쌓는 등 방어 시설의 구축에 진력 하였는데 이는 강화도에서의 방어 시설을 연상시키는 것이며, 아마 진도에서의 실패를 거울 삼은 것으로 보인다. 제주 삼별초의 활동은 처음 내부 정비 등으로 위축되었으나 세력의 회복에 따라 단계적으로 확장되어 고려 본토의 서해와 남해 연안 일대에 그 세력을 확산 시켰다.

제주에서의 삼별초 항전은 진도 거점 시기와는 성격적인 차이가 있다. 가령 제주도에서는 대몽항전의 방식에 있어서 온건론의 입지가 완전히 배제됨으로써 내부 성향이 강경으로 단일화 되었으나, 정치적으로는 그 위상이 보다 약화되었다.

제주도의 삼별초는 반개경정부라는 점에서 제주민과 의식의 전적인 공유가 가능 하였으나 반몽이라는 점에서는 그 感度에 있어서 차이가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이같은 차이는 삼별초세력과 제주민의 역사적 경험의 차이에 주로 기인하는 것이다.

공주대·한국사

* 이 연구는 1994년도 학술진흥재단의 학술연구조성비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임.

I. 머릿말

1270년(원종 11) 몽고에의 복속을 반대하여 봉기한 삼별초의 반몽 세력은 서남해안의 도서 진도에 거점을 정하고 30여년 항몽전쟁의 전통을 계승하였다. 이들은 고려의 정통정부를 자처하고, 몽고와의 대등성을 의식, 帝를 칭하였으며, 일본에 대해서는 사신을 보내기까지 하였다. 주로 전라, 경상도의 남해 연해 지역과 연안도서를 세력권으로 확보하여 몽고군과 개경측에 맞선 진도의 삼별초정권은 여러차례 몽고군을 격파하고 본토의 여러 지역에서는 이들에 호응하는 세력이 봉기하는 등 점차 그 기반이 다져지는 것같았다.

그러나 진도에 항전의 거점을 구축한지 1년만인 이듬해 1271년 5월 몽고 및 개경군의 치밀한 공세에 진도가 함락 당하였고, 이때 진도를 탈출한 이들 삼별초 반몽세력의 일부가 제주에 새로운 거점을 설정하고 항전을 지속하게 된다. 이들 제주 삼별초 세력은 이후 1273년(원종 14)에 이르는 3년동안 해상세력으로서 활동을 전개하였다.

제주는 본토에서 멀리 떨어진 大洋上에 위치하는 데다 역사적으로도 독립성이 강하였던 지역이다. 더욱이 몽고가 중점 추진중인 항후의 정복전쟁에 있어서 제주가 고려·남송·일본 3국의 연결점이라는 데서 특별한 지리적 의의가 주목되는 곳이기도 하였다. 이 때문에 몽고는 삼별초 봉기 이전 이미 수차에 걸쳐 제주에 대한 관심을 나타냈고 삼별초 봉기 이후에는 준비중에 있던 일본정벌에 우선하여 제주 삼별초의 평정을 결정 하였다.¹⁾

본고는 진도항전에 대한 필자(1994a, 1994b, 1994c)의 속고로서 이들 삼별초 반몽세력의 제주도 항전에 대하여 그 전말을 정리 검토하고자 한다. 삼별초의 항전은 일차적으로 그 대상이 고려의 본토

1) 대몽항쟁기 전후 제주도를 중심으로한 고려 및 몽고(원)와의 관계에 대해서는 池內(1926) 및 高昌錫(1984)을 참조할 것.

혹은 개경정부였고 이점에 있어서 반개경적이라는 정치성을 갖는 것이었다. 그러나 실제 개경정부를 조정한 것은 몽고였고, 더우기 삼별초의 항전에 대한 여몽군의 군사작전은 몽고측의 직접적 지휘하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 성격은 기본적으로 침략세력에 대한 반몽항전으로 규정하게 된다.

삼별초의 제주 항전에 대해서는 기왕의 삼별초 항전 관련 연구(김상기 1948, 김윤곤 1981, 나종우 1986)에서 다루어진 바 있지만 전체적 사건전개와 관련된 정리가기 때문에 다소 미흡한 느낌이 없지 않다. 본고는 제주에서의 삼별초 항전을 독립적 논고로서 정리하면서 특히 삼별초 반몽항전의 성격변화라는 점에 초점을 두면서 그 경과를 고찰하고자 하며, 아울러 외부에서 유입된 삼별초 집단과 제주민과의 관계 등에 대해서도 언급함으로써 제주 삼별초의 성격문제를 추구하고자 한다.

Ⅱ. 삼별초 세력의 제주 입거

삼별초 반몽 세력이 본토에서 멀리 떨어진 제주로 거점을 옮기게 된 것은 잘 알려진 바와 같이 몽고 및 개경측의 연합군에 의해 진도 정권이 붕괴됨으로써였다. 원종 12년(1271) 5월 진도가 연합군에 의하여 공함되면서 이들 세력의 일부가 제주로 탈출하였고, 삼별초 세력은 고려 최후의 반몽 세력으로서 향후 3년 동안 그 활동을 지속할 수 있었던 것이다.

이들의 제주 입거에 대해서는 『고려사』 배중손전에 “적장 金通精이 (진도의) 남은 무리를 이끌고 탐라로 들어갔다”고 하였고, 또 남해도에 근거하여 있던 劉存奕은 진도세력의 제주 입거 소식을 듣고 80척의 선단을 이끌고 제주에 합류 하였다고 한다. 이로써 본다면 제주도 삼별초 세력은 진도로부터 탈출한 세력이 중심을 이루면서 아울러 여타 남해 연안도서로부터 이동한 세력, 그리고 이전 제주도에 있던 삼별초 세력 등이 함께 합류하여 항전 활동을 재정비하게

된 것이라 하겠다.

제주도가 삼별초 반몽세력의 최후 거점으로서 출발되는 것은 원종 12년(1271) 5월부터라 하겠지만, 반몽의 거점으로서 제주도가 거론되기 시작한 것은 이미 10여 년 전부터의 일이었다.

(白州 蘇復別監) 金守碑, 別將 于綻이 함께 剃髮하고 也速達의 屯所에 있으면서 고하기를 “고려는 급한 일이 있으면 불림없이 제주로 옮길 것이다. 지금 舊京으로 환도한다는 것은 거짓이다.”(『고려사절요』18, 원종 원년 2월)

원종 초, 당시 최씨정권이 무너지고 무인정권의 집권력이 약화되면서 위기감을 갖게된 무인정권 내부에서는 유사시 제주에의 항전을 거론하기 시작하였던 것 같다. 그같은 정보가 고려의 투몽 반역자들에 의하여 몽고측에 전달 되었는데 이것은 고려정부의 공식적인 부인에도 불구하고 이후 끊임없이 유포되었던 것이 사실이다.²⁾

원종 11년(1270) 삼별초 반몽세력은 새로운 항전 거점을 일단 진도로 설정 하였지만 배후 기지로서의 제주가 갖는 전략적 중요성은 보다 현실적으로 부각 되었다. 즉 진도가 위기에 처할 경우 새로운 항전 거점 설정이 가능한 곳은 제주 밖에 없다고 보아야하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삼별초 정권은 진도를 거점으로 남해 연안에 일정 세력을 확보한 후 곧 제주도를 공략, 후방의 배후로 확보하게 된다. 1270년 8월 진도에 입거한 후 불과 수개월만인 11월 삼별초의 제주 공략이 그것이다. 당시 제주에는 전라도 안찰사 權昞의 지휘로 靈巖副使 金須가 2백의 군으로 현지민을 동원, 방비를 지휘하고 있었으며 삼별초의 위협이 높아지자 장군 高汝霖의 관군을 추가 파병하여 제주 방어군은 대략 1천 병력을 확보하고 있었다.³⁾

2) 원종조에 있어서 항몽의 거점을 이동한다는 이른바 ‘海島再遷’의 논의에 대해서는 윤용혁(1994b:833-843)을 참조할 것.

11월 3일李文京 등이 이끈 진도의 삼별초군은 제주 明月浦에 상륙, 제주 동쪽 東濟院에 머물렀다. 그리고 松淡川에서 제주도 방어군을 逆擊, 김수, 고여림, 진자화를 비롯한 이들 방어군을 격전 끝에 격멸 시켰다.

적(삼별초)이 제주를 공격할 때 김수와 고여림 등이 힘껏 싸우다 죽으니 陳子和가 적진으로 곧바로 뛰어들어 (삼별초의) 장수 郭延壽의 머리를 베어왔다. 다시 들어가 또 이와같이 하니 병사들이 기뻐 하였다. 그러나 또 적군 속에 들어갔다가 적(삼별초)에게 살해 되었으므로 적(삼별초)은 이긴 기세를 타 관군을 모조리 죽였고 제주는 함락 되었다. (『고려사』103, 金應德傳 附陳子和)

진도의 삼별초군은 제주 방어군을 격멸시키고 朝天浦에 웅거 하였는데 이로써 일단 삼별초의 제주에 대한 지배권 확보가 가능하게 되었다.

이후 삼별초의 본군이 제주에 입거하게 된 것은 잘 알려진 바와 같이 원종 12년(1271) 5월 진도 삼별초 정권이 몽고군에게 공함됨으로써였다. 이때 진도에서 탈출한 삼별초군의 잔여세력은 金通精의 지휘로 제주에 입거 하였고 그후 남해도를 거점으로 활동하던 劉存奕도 휘하 80여 척으로 이에 합류하게 된다. 이로써 삼별초의 반몽 세력은 본토에서 멀리 떨어진 제주도를 거점으로하여 반몽항전을 다시 계승할 수 있게 된 것이다.

3) 당시 제주 방어군의 전체 병력 규모가 1천이었음은 『동국여지승람』 제주 고적조의 古長城에 대한 細註에 “高麗 元宗時 三別抄叛 據珍島 王遣侍郎 高汝林等 于耽羅 領兵一千以備之”라한 데서 알 수 있다. 『고려사』 등의 기록상 본토에서는 영암부사 김수의 군 2백에 장군 고여림의 '7십'을 추가하여 파전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장군 고여림의 '七十'군은 아마 '七百'의 오키일 것이다.

Ⅲ. 제주 삼별초의 방어 시설

삼별초 반봉세력은 몽고를 업은 개경측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수세적 입장에 있었기 때문에 자연 방어설비는 전략적으로 매우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게 된다. 진도, 제주도에서의 삼별초의 본토 혹은 연해 지역에 대한 활발한 공격도 일면 방어적 성격을 갖는 공격이었다고 볼 수 있다.

제주도에서의 삼별초의 방어시설은 진도에서의 경우보다 훨씬 강화된 느낌을 준다. 그것은 아마 진도에서의 실패를 거울삼은 것이었다고 생각된다. 기록상 삼별초에 의한 방어설비는 지휘부가 들어선 항파두의 내, 외성, 해변 涯月浦의 성곽, 그리고 제주 해안을 둘러싼 장장 3백여 리의 長城 등을 들 수 있다.

제주도의 삼별초세력이 반봉항전을 위하여 축성한 중심적 방어시설은 역시 제주 서쪽 涯月 방면에서 내륙쪽으로 들어서 있는 항파두리성이다. 이에 대하여 『동국여지승람』 제주 고적조에서는

缸波頭古城: 州 서쪽 40리에 있다. 성안에 샘이 있는데 큰가물에도 마르지 않는다.…… 김룡정이 삼별초를 이끌고 貴日村 缸波頭里에 來據하여 이 성을 쌓고 항거한 곳인데 김방경 등이 進攻하여 함락 하였다.

라고하여 항파두성이 제주 삼별초의 지휘 거점이었으며, 그 위치는 貴日村의 항파두리임을 명기하고 있다.⁴⁾ 그런데 『고려사』 원종세가 13년 6월의 기록에 의하면 제주에 입거한 삼별초세력이 “築内外城”이라하여 내외 2중의 성을 쌓았음을 밝히고 있다. 金庠基(1948: 180) 선생은 이 내, 외성에 대하여 항파두성이 내성, 그리고 기록에 ‘古土城’이라한 것이 외성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았다.

제주 삼별초 지휘부의 외성에 해당한다는 이 ‘고토성’에 대해서는 역시 『동국여지승람』에

古土城: 州의 서남 36리에 있다. 둘레 15리이며 삼별초가 쌓은 것으로 지금은 모두 무너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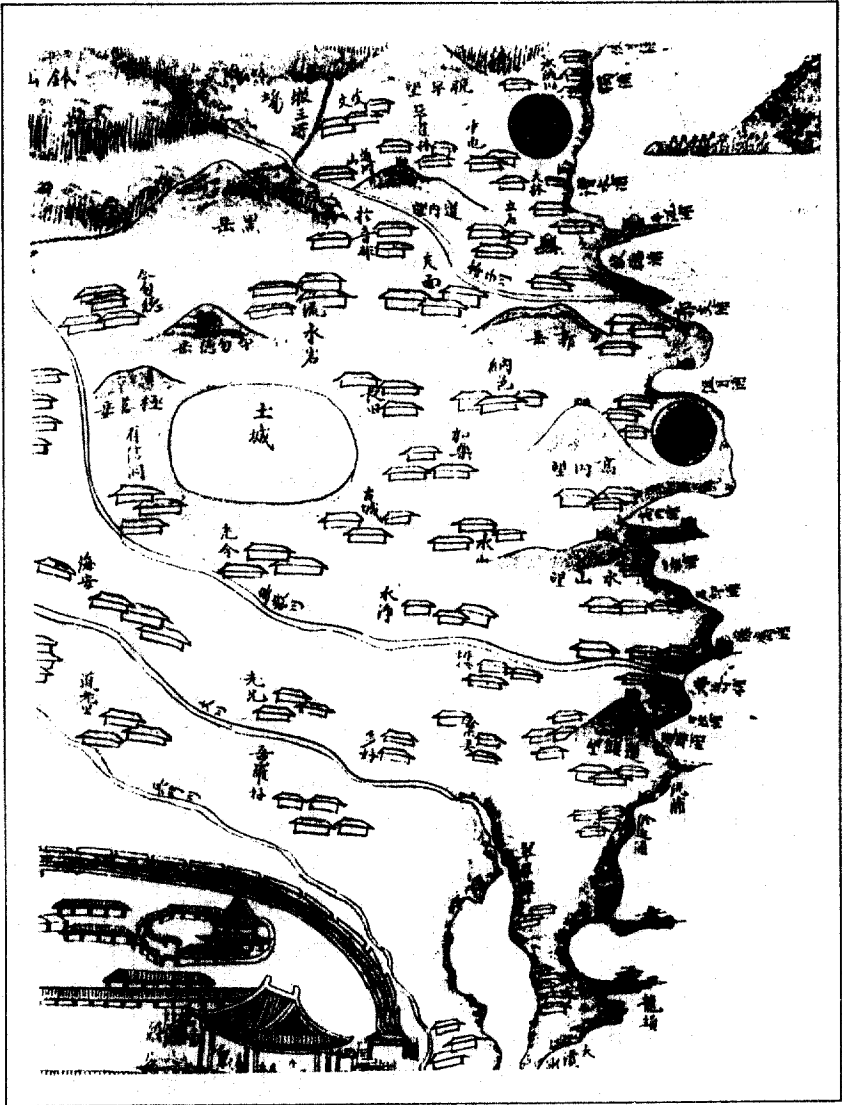
고 하였다. 기록상으로 볼 때 ‘항파두 고성’과 ‘고토성’이 바로 삼별초의 내, 외성이었음은 거의 의심의 여지가 없는 것처럼 보인다.

현재 삼별초의 거점으로 알려진 항파두리성은 북제주군 애월읍 고성리에 복원 정비되어 널리 알려져 있으며 흔히 기록상의 ‘항파두고성’으로 설명되고 있다. 그러나 내성과 외성의 구체적 내용이나 위치 등은 기록과 실체가 정확히 일치되고 있지 않아 아직 애매한 상태임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우선 『동국여지승람』의 관련 기록에서 ‘항파두고성’의 위치가 “제주 서쪽 40리”, 그리고 ‘고토성’이 “제주 서남 36리”라 하였는데, 현재 남아있는 古城里의 항파두리성은 ‘제주 서쪽’이라기보다는 ‘서남쪽’으로 보아야하고, 이점에서 오히려 ‘고토성’이 더 부합하고 있기 때문이다.

‘항파두고성’ ‘고토성’의 문제는 조선조 후기의 읍지류에 그 위치가 『동국여지승람』과 또 달리 되어 있어 더욱 혼란을 느끼게 한다. 18세기의 『여지도서』에서는 ‘고토성’은 ‘서남 36리’ 그대로 되어 있으나 항파두성에 대해서는 “缸坡城: 제주 서쪽 25리에 있다”고 되어 있는 것이다. ‘항파두성’과 ‘고토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현지에 대한 보다 세밀한 관련 유적의 조사가 전제 되어야 할 일이지만, 주변 지역에서 별도의 성곽 유적이 발견되어 있지 않은 현재의 단계에서 필자는 『동국여지승람』의 ‘항파두고성’과 ‘고토성’이 별개의 두 성곽을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이점에 있어서 기록을 다소 가감하여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고 본다.

요컨대 ‘항파두고성’과 ‘고토성’은 별개의 성곽이 아니라 모두 현재 애월읍 고성리에 있는 항파두리성에 대한 설명으로 보아야 한다는

4) 김상기(1948:180)는 貴日村은 上·下貴里, 缸波頭里는 外都里 부근일 것으로 언급 하였다.



〈그림〉 1702년 李衡祥의 『耽羅巡歷圖』
 (제주대 박물관 복간, 1994)에 그려진 항파두리성(土城)

것이다. 이렇게 보면 그 위치, 규모, 토축이라는 성곽의 성격 등 ‘고토성’에 모든 설명이 현재 향파두리성에 어긋남이 없는 것이다. 다만 여기에서 내, 외성의 구체적 내용은 아직 설명하기 어렵다. 제주 현지에서는 현재의 향파두리성이 외성이고 그 안 중심부에 둘레 약 750미터의 정사각형 석성이 내성으로 축조되었던 것으로 이야기하고 있으나(제주도 1978:34), 이 역시 석연스럽지 않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에서 필자는 현재의 향파두리성과 그 주변지역에 대하여 보다 정밀한 지표조사를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

한편 삼별초는 내외 2중의 향파두리성 이외에 涯月港에 木城을 축조하였다고 한다. 『동국여지승람』(제주 고적조)에

涯月木城: 제주 서쪽 42리에 있으며 삼별초가 쌓아 관군을 막았던 곳이다. 지금은 반은 무너졌다.

라고한 것이 그것이다. 애월은 향파두리성에 연결되는 가장 중요한 항구였고 이 때문에 특별히 성곽 축조의 필요성이 있었을 것이다. 아마도 애월포는 삼별초 수군 병력의 거점, 그리고 향파두리성에 이르는 가장 중요한 관문이었을 것이다.⁵⁾ 이로써 삼별초는 중심 거점에 내외 2중의 성, 그리고 관문이며 수군 거점이라 할 애월포에 성곽을 구축했음을 알 수 있다.⁶⁾

5) 김상기(1948:181)는 애월목성이 향파두성으로부터 2리 거리라고 하였다. 이는 『동국여지승람』(제주 고적조)에서 향파두성을 서쪽 40리 지점으로, 그리고 애월목성을 서 42리 지점으로 기록한 데 근거한 것으로 보이는데, 그러나 이는 실제와 크게 차이가 있다.

6) 애월 木城에 대하여 『동국여지승람』에서 “今半頽落”이라한 것을 보면 삼별초가 쌓은 애월성은 조선 초까지 그 遺址가 남아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조선조 후기의 읍지류에서는 이같은 표현이 삭제되었고, 대신 성곽조에 조선조에 쌓은 석축의 애월성이 등장하고 있다. 이로써, 고려시대 애월성의 터에 조선시대 석성을 구축한 것은 아닐까 생각한다.

삼별초는 외부로터의 공격에 대비, 애월에 木城을 쌓은 이외에도 주변 포구에 역시 방비 시설을 갖추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동국여지승람』 제주목 산천조에 의하면 제주 북안의 포구로서 泥浦(제주 서쪽 9리 지점), 道道里浦(서쪽 10리 지점), 貴日浦(서쪽 27리 지점), 高內浦(서쪽 40리 지점), 歸德浦(서쪽 47리 지점), 明月浦(서쪽 60리 지점), 獨浦(서쪽 61리 지점) 등과 咸德浦(제주 동쪽 31리 지점), 北浦(동쪽 45리 지점), 於等浦(동쪽 64리 지점) 등이 게재되어 있는 바, 이들중 일부 포구에는 방비 시설이 고려 되었을 것이다. 특히 항파두리성에서 가장 근접한 귀일포의 경우는 더욱 그러하다.

이상 언급한 내용은 삼별초 세력의 거점인 항파두리성을 중심으로 구축된 방어 설비지만, 다른 한편으로 삼별초는 제주 해안을 전체적으로 둘러친 3백리 장성을 구축 하였다.

古長城: 沿海를 둘러싼(環築) 것인데, 둘레가 3백여 리이다. 고려 원종 때 삼별초가 진도를 거점으로 叛하므로 왕이 시랑 高汝林 등을 탐라에 보내 군 1천으로 수비케하고 인하여 장성을 쌓았다. (『동국여지승람』 제주 고적조)

기록에 따르면 이 環海長城은 진도의 삼별초를 막기 위하여 개경측에서 쌓은 것으로 되어 있다. 그리고 축성의 작업은 고여립 등에 의하였다는 것이다. 그러나 제주의 環海長城 축성의 주체에 대한 이같은 기록은 신빙하기 어렵다. 개경정부가 삼별초의 제주 進攻을 염두에 두고 제주 방어를 강화하는 시점은 아무래도 원종 11년(1270) 8월 삼별초의 진도정부 수립 이후로 보아야 하는데, 제주는 같은 해 11월에 삼별초군에 의하여 공함되었다. 더우기 축성의 지휘자로 되어 있는 高汝霖은 9월 신축(4일)에 장군 楊東茂와 함께 진도 공격에 참여하고 있다(『고려사』 26, 원종세가 11년 9월). 이로써 보면 고여립은 빨라야 9월중에 제주에 파견되었던 것인데, 그로부터 삼별초군에 의하여 고여립 등이 패몰하고 제주가 공함된 것은 불과 한 달 남짓 밖에 되지 않는 기간인데 이 사이에 長城이 축성되었다

는 것은 전혀 가능하지 않은 일인 것이다.⁷⁾ 따라서 위에 기록된 제주의 環海長城은 바로 삼별초군에 의하여 몽고군 공격을 대비한 축성이었다고 보지 않으면 안된다.⁸⁾

그런데 제주도의 연안 장장 3백리에 걸쳐 방어로 축성한 이 장성에 대해서 김상기(1948:181) 선생은, “방비시설로서 쌓은 堤防”이었을 것이라하여 ‘長城’이라는 기록조차 의심하였다.⁹⁾

그러나 그것이 실제 연안을 석축으로 둘러싼 長城이었음은 현지의 조사 연구에 의하여 확인 되었다.¹⁰⁾ 이에 의하면 현재 장성의 구조가 남아 있는 부분은 제주시의 禾北洞, 북제주군 咸德里, 北村里, 東福里, 坪垵里, 高內里, 涯月里, 그리고 남제주군 溫平里, 新山里, 泰興里, 日果里, 永樂里 등이며 주로 섬의 北岸에 다수 분포하나 南岸에서도 나타난다(강창언 1991:122-123, 136).

제주 삼별초군의 방어 설비는 내성, 중성, 외성의 3중성을 둘러친 강도를 연상케 한다. 그러면서도 제주의 삼별초군이 섬의 방어에 이 같이 엄청난 노력을 기울인 것은 무엇보다도 진도에서의 실패를 깊이 거울삼은 것이라 생각된다(김상기 1948:181). 삼별초군은 제주

7) 제주 沿海의 장성 축성 주체에 대하여, 그것이 고려립 등 개경측에 의한것일 수 없다는 것에 대해서는 일찌기 김상기(1948:181)에 의하여 지적 된 바 있다. 그럼에도 근년 이 長城에 대한 현지 연구(강창언 1991:109-110)에서 이같은 역사성을 배제하고, 단순히 문헌 기록의 문자에 집착하여 이 성을 개경측에 의하여 1, 2개월의 단기간에 이루어진 것으로 정리한 것은 합당하지 않다.

8) 『耽羅紀年』外書 憲宗 11년에 “修築環海長城”이라한 것을 보면 장성은 고려 원종조 이후, 후대의 補築이 있었다고 해야할 것 같다.

9) “이것을 장성이라 하였으나 이는 後人の 誤傳 또는 誤認에서 나온 것으로서 저 강도의 沿岸堤防과 대조하여 보면 역시 연안의 방비 시설로서 쌓은 제방이었으리라고 믿는 바이다”(김상기 1948:181)

10) 이른바 제주의 환해장성에 대한 최초의 조사는 高昌錫·姜彰彥(1988)에 의해 부분적으로 이루어졌다. 이후 이에 대한 본격적인 조사 작업은 강창언(1991)이 하였는데, 잔존 유적의 일부인 제주시 화북동과 북제주군의 涯月·高內·北村里, 남제주군의 溫平里的 장성 유적을 조사 연구한 것이다.

도 방어에 역점을 두는 한편 바다를 건너 沿海 일대에 출몰함으로써 본토를 위협 하였다. 이같은 사정에 대해서는 제주도에 입거하여 1년이 지난 시기의 기록에

때에 적(삼별초)들이 제주에 들어와 내, 외성을 쌓았는지라 그 험하고 견고함을 믿고 나날이 창궐하여 노략을 일삼았으므로 沿海 지방이 적막하여졌다. (『고려사』 27, 원종세가 13년 6월)

고 적고 있다. 제주 삼별초의 활동은 항파두성을 비롯한 방어시설의 수축을 전제로 하여 비로소 가능했던 것임을 짐작케 된다.

IV. 제주 거점 삼별초의 활동

원종 12년 5월 진도가 공함 당한 후 제주에 입거한 삼별초군의 활동에 대해서는 그 해 하반기에 있어서 특별한 기록이 나타나 있지 않다. 이것은 제주에 입거한 초기, 삼별초군이 본토를 위협하는 구체적인 군사행위를 전개하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몽고에 보낸 사신편에 당시 정세에 대하여

역적(삼별초)의 남은 무리들이 제주로 도망해 들어가 여러 섬과 포구 사이를 횡행하는 상태인데, 앞으로 육지로 나올 염려가 있으므로 이를 진멸 시켜주기 바랍니다. (『고려사』 27, 원종세가 13년 11월)

라고 하고 있는데, 이로써 보면 동년 하반기 제주의 삼별초군은 본토에의 군사행동을 삼가한 채 주변 도서만을 확보하고 있었던 것이 분명하다. 이는 무너진 조직의 복구 및 거점 시설의 조영 등에 우선 주력하고 있었던 사실을 말해주고 있다.

제주의 삼별초군이 드디어 다시 본토 연해 지역을 위협하기 시작하는 것은 거의 1년이 가까워오는 이듬해 원종 13년 3월에 들어서의 일이다. 이후 삼별초군의 군사 활동은 대략 다음과 같은 3단계의 과

정으로 발전되어 간다.

제1단계: 원종 13년 3월부터 8월까지. 삼별초의 본거지였던 전라도 연안지역에 대한 군사활동의 전개 기간.

제2단계: 동년 9월부터 11월까지. 삼별초군의 활동이 전라도 연해로부터 충청 경기의 서해 연해까지 확장되어 개경을 위협하며 지방 관아 등을 적극 공략하는 단계.

제3단계: 같은해(원종 13년) 11월부터 원종 14년 초까지. 몽고군이 주둔하고 있던 경상도 연해지역까지 군사활동을 확대한 시기.

우선 원종 13년 3월부터의 1단계는 우선 본토에 대한 군사활동이 가장 용이한 전라도 연안 지역에 대한 공세이다. 이때 삼별초군은 전라도 會寧郡에 침입하고 漕運船 4척을 붙들었으며¹¹⁾ 인근 海南과 海際(무안군)의 연안 일대를 석권 하였다.¹²⁾ 5월에는 大浦¹³⁾ 를 치고 역시 조운선 13척을 잡아갔으며,¹⁴⁾ 곧이어 耽津縣으로 진출 하였다.¹⁵⁾ 그리하여 3월에서 5월에 이르는 사이 개경측은 조운선 20척, 미곡 3천 2백여 석을 빼앗겼으며 피살자 12명, 삼별초에 붙잡혀간 자가 24명이라고 집계하고 있다.¹⁶⁾ 이무렵 경상도에서는 이른바 제주 삼별

11) “三別抄餘黨 寇會寧郡 掠漕船四艘”(『고려사』 27, 원종세가 13년 3월)

12) “遣郎將李有庇 如元上表曰…… 今但有濟州逆賊 是年三月四月 侵掠 于會寧·海際·海南等三縣之浦 劫脫諸州漕船”(『고려사』 원종세가 13년 6월)

13) 大浦에 대해서는 이를 井邑이라 하였으나(김상기 1948:182), 가능성이 희박하다. 당시 삼별초의 활동 상황과, ‘浦’라는 지명, 조운선의 통과지 등을 고려할 때, 대포는 서남해 연안(전남 서남부)일 공산이 매우 크다. 필자는 여기에서의 ‘大浦’가 혹 ‘木浦’의 착오가 아닌가 생각한다. 이같은 오류는 삼별초가 ‘耽羅’에 침입하였다는 원종 14년 3월의 기록에서도 보인다. 여기의 ‘耽羅’라 한 것은 필시 ‘耽津’(강진)의 오류일 것이다.

14) “全羅道按察使報 三別抄寇大浦 掠漕船十三艘”(『고려사』 27 원종세가 13년 5월 신유)

15) “三別抄 焚掠耽津縣”(『고려사』 27, 원종세가 13년 5월 정축)

16) 『고려사』 27, 원종세가 13년 6월

초의 諜者 2인이 체포 되었는데¹⁷⁾ 이로써 보면 삼별초는 전라도를 중심으로한 서남해안에서 군사 행동을 진행하는 한편 경상 지역 진출을 위한 정보 활동을 행하고 있었던 것이다.

제주 삼별초군의 본격적인 활동에 맞추어 개경정부는 원종 13년 3월 戰艦兵糧都監을 설치 하였다.¹⁸⁾ 그 조직과 구체적인 활동은 알 수 없으나, 이것이 삼별초군에 대한 대책에서 비롯 되었음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원종 13년 상반기에 전라도 서남 해안을 지속적으로 위협하던 삼별초군은 6월 경에 이르러 그 활동영역을 확대 시킬뿐만 아니라, 공격의 심도를 더해가게 된다. 이것이 삼별초 군사활동의 제2단계이다. 그리하여 삼별초는 연안의 해로를 따라 북상, 경기 연안까지 진출하였는데 삼별초의 이같은 움직임에 대하여 개경의 민심은 매우 동요되었다.¹⁹⁾ 삼별초군은 서해 연안 일대를 오르내리며 삼남지방에서 개경으로 연결되는 조운로를 위협 하였다. 그리하여 동년 8월에는 전라도에서 서울로 올라가는 貢米 8백 석이 삼별초의 수중으로 들어갔다.²⁰⁾ 개경정부는 경상도 주둔의 몽고군의 전라도 투입을 몽고에 요청하는 한편²¹⁾, 장군 羅裕에게 병력 1천 5백을 붙여 전라도에 내려 보냈다.²²⁾

9월 삼별초는 서해 孤瀾島를 공격, 고려측의 전함 6척을 불태웠으며 造船 기술자들을 살해 하였다. 그리고 造船官의 임무를 맡아 수행하던 洪州

17) “慶尙道按察使 執送耽羅賊諜二人”(『고려사』 27, 원종세가 13년 5월 을축)

18) 『고려사』 27, 원종 세가 및 동서 77, 「百官志」

19) “全羅道指揮使報 三別抄賊船六艘 過安行梁而上 京城洶懼”(『고려사』 원종세가 13년 6월 무자)

20) “三別抄略奪 全羅道貢米八百石”(『고려사』 27, 원종세가 13년 8월 임신)

21) 『고려사』 27, 원종세가 13년 6월 임자

22) 『고려사』 27, 원종세가 13년 6월 을묘

23) 『고려사』 27, 원종세가 13년 9월 무진

副使 李行儉을 비롯, 結城과 藍浦의 監務를 사로 잡았다.²³⁾ 아마 고란도에 서는 對삼별초戰, 그리고 향후의 對日 征役 수행을 위한 造船 작업이 진행 중에 있었던 것 같다. 이 작업은 홍주(홍성)부사를 책임관으로 하여 홍주(홍성), 결성(홍성), 남포(보령) 등 인근 군현민들이 동원되어 진행중에 있었는데 삼별초군은 이를 일거에 공격하여 조선작업을 무산 시켰던 것이다. 이같은 사태에 대하여 정부는 측근 장교를 파견, 상황을 직접 파악하기까지 하였는데,²⁴⁾ 아마 당시 삼별초군은 고란도의 공격에 뒤이어 연안지역에 상륙, 홍성, 결성, 남포 등 인근 지역 수령들을 사로잡은 것으로 생각된다.²⁵⁾ 삼별초군의 공세는 계속되어 같은 해 11월에는 개경에서 비교적 가까운 지역인 安南都護府(富平)²⁶⁾ 에 침입, 府使 孔儉와 그 가족을 붙들어갔다.

삼별초군이 서해 연안 깊숙이, 경기 혹은 충청 연해지역에까지 출몰하게 되는 것은 몇가지 이유가 있는 것 같다. 그것은 기본적으로 개경에 연결되는 조운로를 광범하게 차단 시키면서, 삼별초의 위력을 과시함으로써 개경측을 위협하려는 것이었다. 그러나 다른 한편

24) “遣近仗將校于中道 探候賊變” (『고려사』 27, 원종세가 13년 9월)

25) 당시 삼별초군이 공격해 들어온 연안지역 거점은 홍성군 결성면 水龍洞의 板橋港으로 전해지고 있다. 수령들을 사로잡고 식량을 빼앗은 삼별초 군은 주민들의 저항을 받아, 주민들이 “야음을 틈타 잠자는 시간에 밧줄을 끊고 배를 바다에 띄운 후 햇불을 던져 불을 지르는” 상황이 되어 물러났다는 것이다. (『대전일보』 11308호, 浦口 18)

26) 김윤곤(1981:205)은 이 안남도호부를 全州라 하였다. 그리고 그 근거로서 김정호의 『大東之誌』에 “元宗十三年 三別抄寇全州 執府尹孔儉”라 한 기록을 제시 하였다. 『고려사』 지리지에 의하면 전주가 현종조에 한때 안남도호부로 승격되었던 사실이 나타나 있기는 하지만 그러나 이는 비교적 한시적이었던 것 같다. 『대동지지』에서는 지명의 혼동으로 典故를 잘못 편집한 부분이 없지 않다. 가령 고종 42년 입보처에 대한 公山城의 기록과 관련, 이를 『대동지지』에서는 공주의 공산성으로 정리 하였는데 사실은 대구의 공산성이었다. 고종 연간 기록에 나오는 ‘安南’이 부평을 가리키는 것이며, 이 시기 ‘전주’는 전주로 기록에 나오는 것을 보더라도 원종 13년 삼별초군이 침입한 지역은 개경에 가까운 부평이었다.

으로 삼별초의 중부 지역에 대한 작전은 제주 삼별초 세력이 필요로 하는 인물들을 적극적으로 확보하는 작업의 일환이기도 하였던 것 같다. 이점에서 삼별초에 붙들려간 홍주부사 李行儉과 安南府使 孔愾 등이 삼별초로부터 일정한 대우를 받고 있었음이 주목된다. 그중 특히 이행검은 삼별초에 의해 捕執된 후 제주 삼별초의 인사 업무를 맡은 것으로 되어 있다.²⁷⁾ 그는 이미 淸州·谷州·豐州 등의 수령을 역임하면서 ‘廉簡’으로 이름이 나 있었으며, 삼별초는 이같은 내용을 사전에 파악하여 전략적 성과를 거두는 한편으로 필요한 인물들을 데려다 사용하였던 것이다. 안남부사 孔愾의 경우 역시 그 가족들이 함께 삼별초군에 捕執 되어간 것을 보면 단순한 포로가 아니었던 것 같다. 제주 삼별초에 잡혀간 후 공유가 어떤 일을 맡았는지 알 수 없지만, 그는 생존하여 제주도 함락 후 개경으로 다시 귀환하고 있다.²⁸⁾

제주 거점 삼별초 군사활동의 제 3단계는 삼별초군이 몽고군의 주둔지였던 경상도 연안까지 그 활동 영역을 확대시킨 단계이다. 몽고군은 征東役의 추진을 위하여 특히 경상도 연해 지역인 金州(金海) 등지에 군사를 주둔 시키고 있었다.²⁹⁾ 이같은 상황에서 삼별초군의 경상도 지역에 대한 공격은 신중할 수 밖에 없었다. 그리하여 경상도 지역에는 이들의 동태 파악을 위한 정보 수집을 먼저 하였으며,³⁰⁾ 군사활동의 제3단계에 비로소 그 활동을 경상도 연안까지 확대 시켰던 것이다.

27) “行儉…… 陷於三別抄之亂 賊使掌選法”(『고려사』 106, 李湊傳 附行儉 傳)

28) 『고려사』 27, 원종세가 14년 6월 갑신

29) 몽고군의 경상도 주둔에 대해서는 원종 11년 12월에 발송된 몽고의 조서에 “仍以勿林赤·王國昌·洪茶丘 將兵…… 姑令金州等處 屯駐”(『元史』 208, 고려전 至元 7년 12월: 『고려사』 27, 원종세가 12년 정월) 혹은 진도 삼별초와 관련된 「高麗牒狀不審條條」의 “屯金海府之兵” 등의 기록이 보인다.

30) 주17 과 같음

金州 주둔 몽고군의 병력 규모는 정확히 알 수 없으나, 적은 규모가 아니었다. 이 때문에 개경정부는 삼별초의 공격으로 열세에 처한 전라도 연안 지역의 방어에 金州 주둔 몽고군의 투입을 열망 하였으며 원종 13년 6월 李有庇 편 의 표문을 통해 경상도지역 몽고군중 2천 병력을 전라도 연안 지역 방어에 투입해 줄 것을 요청 하기도 하였다.³¹⁾ 이제 원종 13년 11월부터의 삼별초군의 군사활동을 『고려사』 원종 세가로부터 뽑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원종 13년 11월) 삼별초 合浦(마산)에 침입, 전함 20척을 불 태우고 몽고의 烽卒 4명을 잡아갔다.

(같은 달) 삼별초가 거제현을 치고 전함 3척을 불태웠으며 현령을 붙잡아 갔다.

(같은 달) 삼별초 선단이 靈興島(경기)에 정박하여 近境을 횡행하므로 왕이 몽고 원수 忻都에게 50騎를 청하여 궁궐을 宿衛 하였다.

(원종 14년 1월) 전라도 防護將軍 文景秀의 보고에 “賊(삼별초)船 10척이 樂安郡을 침입 하였다”고 하였다.

(같은 달) 삼별초가 合浦에 쳐들어가 전함 32척을 불태우고 몽고병 10여 인을 잡아 죽였다.

(같은 해 3월) 원수 金方慶이 보고하기를 “적(삼별초)이 耽羅(耽津의 錯誤인 듯)에 들어와 防守散員 鄭國甫 등 15인을 죽이고 낭장 吳玆 등 11인을 붙들어갔다”고 하였다.

이상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경상도 지역에 대한 본격적인 공격은 원종 13년 11월 합포(마산)로부터 시작되어 인근의 거제도 등에 미쳤으며 특히 합포의 경우는 정박중인 전함 20척 혹은 32척을 불태우고 몽고병을 포로로 잡아가는 등 征東役과 관련된 몽고군을 직접 공격 대상으로 삼고 있음이 주목된다.

31) 『고려사』 27, 원종세가 13년 6월 임자

제주 거점의 삼별초군은 원종 12년 5월 제주 입거 이후 내부 정비를 끝내고 전라도 연안, 개경에 가까운 서해 중부 연안, 그리고 몽고군의 주둔처인 경상도 연안 지역으로 점차 그 활동 영역을 넓혀 갔다. 그리고 군현의 관아를 공격하고 수령을 잡아가는 등 본토의 여러 지역을 위협하고 개경의 고려정부를 긴장 시켰다. 그러나 이러한 활동은 본토에서 멀리 떨어진 제주를 거점으로 하고 있다는 한계성으로 인하여 산발적인 위협 공격으로 그치고 말았다.

V. 삼별초의 최후 反蒙 항전

제주 삼별초군의 활동이 본토에까지 미치면서 우선 개경정부는 이들을 회유하고자 하였다. 그리하여 원종 13년(1272) 3월, 閤門副使 琴熾을 ‘濟州逆賊招諭使’에 임명하여 散員 李貞 등과 함께 삼별초군에 파견하게 된다. 이들 제주초유사 일행은 4월 15일 선편으로 본토를 출발하여 甫麻島에 정박중 삼별초의 金希就, 吳仁鳳, 田祐 등에 의하여 被執되어 楸子島에서 拘留 되었다. 삼별초군은 일단 상황을 제주에 보고하여 지시를 받았는데, 삼별초 지휘부의 반응은 초유사에 대하여 극히 냉담한 것이었다. 그것은 진도 거점 시기 개경측에 대한 온정적인 태도가 도리어 방어 체제를 해이케하고 내부 정보가 유출됨으로써 패배를 자초 하였다는 판단 때문이었다. 그리하여 金훈 등은 겨우 목숨만을 건진 채 쫓겨 돌아오고 말았다. 4월 29일 돌아온 제주초유사 金훈은 저간의 사정을 몽고에 직접 보고하기 위하여 곧 몽고에 파견 되었다. 이로써 보면 초유사의 제주 파견도 개경측의 독자적 조치였다기보다는 몽고의 지시를 받아 이루어진 것이었음을 짐작케 한다.

고려를 근거로하여 대남송전 및 일본征役을 의도하고 있던 몽고는 다음 단계의 군사행동을 위하여 고려의 반몽세력이 옹거하고 있는 제주도에 대한 작전의 필요를 우선하게 된다.³²⁾ 몽고에 있어서 제주는 단순한 반몽세력의 거점만이 아니라 지정학적으로 고려, 남송, 일

본을 연결하는 해상요충이라는 점이 이미 주목 되었던 때문이다.³³⁾

招諭에 대한 제주 삼별초의 냉담한 반응이 확인되면서 몽고는 侍衛親軍 王崧을 파견, 고려에 주둔중인 洪茶丘와 함께 제주 공격을 구체적으로 논의 하도록 하였다. 이미 남송에 대한 본격적인 戰役을 전개하는 한편 일본정복을 염두에 두고 있던 몽고로서 고려에 잔존한 항몽세력을 완전히 정리해야할 필요성이 매우 높았던 것이다.

홍다구는 제주 삼별초에 대한 또 한차례의 초유를 몽체에게 건의 하였다. 방법은 삼별초 반몽세력의 두령인 金通精 등의 친족을 보내어 김통정을 직접 회유해보자는 것이었다. 그리하여 같은 해(원종13) 8월 김통정의 조카인 낭장 金贊과³⁴⁾ 李邵,³⁵⁾ 그리고 역시 삼별초의 장군인 吳仁節³⁶⁾ 친족(吳桓·吳文·吳伯)과 동행케하여 제주에 들여 보냈다.³⁷⁾ 그러나 이들 2차 초유사들은 김찬을 제외하고 모두 삼별초군에 의하여 처단 되었다. 제주의 삼별초는 이제 몽고 혹은 개경측과는 아무런 접촉이나 대화도 원하지 않았던 것이다. 이로써 몽고군의 삼별초 공격은 시간 문제가 되었다.

32) “(至元 9年) 中書省臣及 樞密院臣議曰 若先有事日本 未見其順逆之情 恐有後辭 可先平耽羅” (『元史』 208, 탐라전)

33) “世祖 既臣服高麗 以耽羅爲南宋日本衝要 亦注意焉” (『元史』 208, 탐라전)

34) 『고려사』(원종세가 및 배중손전)에 金贊이라 하였으나 『元高麗紀事』 및 『원사』(154, 흥복원전)에서는 ‘金永’으로 되어 있다. 김상기(1948:168, 주 79) 선생은 양인이 동일인일 것이나 어느 것이 옳은지는 단정하기 어렵다고 하면서, 김찬을 원종8년 경 蒙使 黑的과 일본에 행하였다가 중도에 돌아온 侍御史 金贊과 같은 사람일 것으로 추정 하였다. 김찬과 김영이 동일인일 경우, ‘金贊’이라한 『고려사』의 기록을 취하는 것이 좋다고 보는데, 『新元史』 249, 고려전에서도 ‘金贊’이라 하였다.

35) 李邵에 대해서는 잘 알 수 없으나 제주 삼별초의 주요 인물과 인척 간으로 생각된다.

36) 『고려사』 130, 배중손전에서는 吳仁節을 김찬과 함께 제주에 파견된 인물로 기록 하였으나 원종세가에 “賊將 吳仁節”이라 한 것을 보면 오인질이 제주 삼별초의 장군임이 분명하다.

원종 13년(至元 9: 1272) 11월 몽고(원)는 일본정복에 앞선 정치 작업으로 제주의 삼별초 세력에 대한 군사작전을 결의하였다. 그리하여 이를 위하여 고려에 주둔중인 屯田軍 2천과 漢軍 2천에 특별히 武衛軍 2천을 추가하기로하고, 아울러 고려군 6천을 동원케 함으로써 도합 1만 2천 병력을 확정 하였다.³⁸⁾ 이 규모는 여몽군의 진도 공함시 동원된 병력과 대략 비슷한 규모였던 것 같다.³⁹⁾ 이에 따라 개경 정부는 제주 침공을 위한 군사 6천에 병력을 이동시킬 水手 3천을 할당받고 그 충원을 위해 즉시 抄軍別監을 각 도에 파견 하는 한편 경상도 등지에서의 병선 건조작업도 독려 하였다. 이듬해 원종 14년 정월에는 몽고 達魯花赤 馬絳이 대장군 宋瑋과 함께 병선 상황을 돌아 보았다.⁴⁰⁾ 제주 공격에 동원된 船艦은 160척으로, 모두 전라도 병선인 것처럼 되어 있다.⁴¹⁾

몽고군의 지휘는 진도 戰役 이후 고려에 머물러 있던 忻都, 史樞, 洪茶丘 등에게, 그리고 고려군의 지휘 역시 진도에 투입 되었던 金方慶이 계속 맡게 되었다. 군량은 경상도로부터 조달토록 하였으며,

37) 이와 관련, 『원고려기사』에서는 “奉旨命茶邱 於全羅道訪得通精姪金永等 七人 使招通精”이라하여 金永(金贊) 등 제주에 파견된 이들을 전라도에서 ‘訪得’한 것으로 되어 있다. 그리하여 김상기(1948:186)는 이를, 삼별초 봉기 후 “그(김통정)의 족당이 지방으로 散走한 것을 보여주는 것”으로 해석 하였다. 그러나 이에 대한 『원사』 흥복원전의 기록에는 “俄奉旨 往羅州道 監造 戰船 且招降耽羅 茶丘得通精之姪 金永等七人 俾招之”라 하여 홍다구가 전라도(나주도)에 내려간 것은 造船 업무의 점검을 위한 것이었으며 김영(김찬)과는 무관한 것이었음이 밝혀져 있다. 따라서 김찬 등 제주 파견 7인의 인물들은 “茶丘表陳 通精之黨 多在王京” 운운한 것처럼 개경에서 확보한 인물이었던 것이다.

38) 『원사』 7, 世祖本紀 至元 9년 11월 己巳

39) 진도 공함 작전에 동원된 몽고군 규모는 6천이었으며, 말은 1만 8천이 조달 되었다. (『고려사절요』 19, 원종 12년 9월)

40) 『고려사』 27, 원종세가 13년 12월 및 14년 정월

41) 『고려사』 27, 원종세가 14년 4월 경술

여몽군은 영산강 중류 潘南縣에 집결하여 대오를 정비 하였다. 병선은 경기 혹은 경상도 지역과 같은 데에서도 동원 하였으나 이들은 이동중 병선이 한꺼번에 침몰하는 대형 사고가 잇달아⁴²⁾ 실제 제주 공격에는 전라도 병선 160척만이 동원 되었다. 공격진용의 편성은 진도 공격 때와 같이 中軍과 左, 右軍의 3군으로 편성, 출정 하였다. 潘南에서의 출발은 원종 14년(1273) 4월 9일로서⁴³⁾ 이들은 영산강을 따라 내려가 제주도까지의 중간지점인 추자도에서 일단 정박 하였다.⁴⁴⁾ 추자도는 원종 13년 5월 개경에서 파견한 琴薰 등 제주초유사 일행이 삼별초군에 억류된 곳으로서 제주 삼별초군의 활동에 있어서는 중요한 전략요지였을 것임이 분명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호 交戰이 없었던 것을 보면, 이 때 삼별초군은 모두 제주로 철수해버렸던 것 같다. 여몽군은 이 추자도에서 일단 숨을 돌리고, 일거에 제주의 삼별초 항몽 거점을 공격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바람과 풍랑으로 인하여 일정이 다소 지체되고 작전에도 커다란 어려움이 따랐다.⁴⁵⁾ 여몽군의 공격은 진도 때와 같이 3지점에서 진행 되었다. 지휘부가 있는 주력의 중군은 삼별초의 거점인 항파두성에서 동쪽으로

42) 주로 경기도지역에서 동원된 듯한 서해도의 병선은 남하중 伽耶召島에서 20척이 침몰하고 南京判官과 仁州副使를 포함한 115명이 익사 하였으며, 경상도 병선 역시 27척이 파선 침몰 하였다. (『고려사』 27, 원종세가 14년 3월 기묘) 이같은 사고는 폭풍으로 인한 자연재해가 직접적 요인이었지만 造船 작업 자체에도 문제가 있었던 것 같다. 따라서 여타지역 병선은 일제 배제하고 전라도 병선만으로 제주공격이 진행된 것이다.

43) 『고려사』의 기록에서는 여몽군 출정의 정확한 일자를 확인할 수 없으나, 『원고려기사』에서 4월 9일조에 이를 게재하고 있다.

44) 楸子島는 전라도 본토에서 제주에 이르는 중간 지점으로 예로부터 중간기항지로서 이용 되었다. 『동국여지승람』(38, 제주목 산천조)에서 “제주에 가는 자가 나주에서 떠나면 務安 大嶼浦, 靈巖 火無只瓦島, 그리고 海南 於蘭梁을 거쳐 이 섬(추자도)에 이른다”하였고, 그 거리는 晝夜 三日程이라 하였다. 여몽군은 이같은 항로대로 추자도에 이르렀다고 하겠다.

멀리 떨어진 威德浦에 상륙 하였다. 좌군의 30척 병력은 항파두성에서 서북으로 약간 떨어진 飛揚島를 교두보로 하여 翰林 해변으로 상륙 하였다. 右軍의 행방에 대해서는 기록이 없으나 涯月 해변에서 삼별초군을 유인하는 역할을 담당한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涯月浦는 삼별초의 거점이었던 항파두성의 外港으로서 전략적 중요성이 가장 컸던 지점이라고 보여지는데⁴⁵⁾ 공격군이 이를 방치했을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아마도 우군이 애월쪽에서 상륙할 것처럼 시위함으로써 항파두성의 방어 병력을 애월포로 유인 하였을 것이 틀림없고, 이같은 陽動 작전은 이미 진도 공합시 크게 효과를 보았던 작전이기도 했던 것이다. 右軍의 애월포 공격이 항파두성의 방어군을 끌어내는 사이 실제 삼별초군 지휘부를 공격해 들어간 것은 항파두성에서 서쪽 40여 리 지점 비양도로 들어온 좌군이었다. 당시의 사정에 대해서는

좌군의 전함 30척이 飛揚島로부터 賊(삼별초)의 거점을 직공하여 들어가니 적(삼별초)들이 바람에 날리듯 子城으로 밀려 들어갔다. 官軍이 외성을 넘어 들어가 火矢 4발을 쏘니 화염이 충천하여 적(삼별초)의 무리가 크게 혼란 되었다. (『고려사』 104, 김방경전)

고 하였는데 이로써 보면 삼별초군은 좌군의 공격에 크게 손을 쓰지도 못한 채 치명적 타격을 받고 말았던 것이다. 삼별초군이 이처럼 “

45) 이같은 사정에 대해서는 『고려사』 104, 김방경전에 비교적 길게 기록되어 있다.

46) 涯月에는 제주의 삼별초군이 “관군을 막기 위하여”(『동국여지승람』 38, 제주목 고적조) 木城을 축성할 정도로 전략상 중요한 곳이었다. 항파두성의 군사적 정치적 기능이 완전 상실된 조선시대에도 애월포에는 성곽이 축성되고 防護所와 水戰所가 설치되는 등(『동국여지승람』 38, 제주목 관방조) 제주 방어와 관련하여 전략적으로 중시되고 있었다.

바람에 날리듯” 속수무책이 되었던 것은, 생각컨대 우군의 陽動작전에 맡겨 애월쪽으로 방어력이 유인 당하였기 때문일 것이다.

중군이 상륙한 함덕포는 항파두성에서는 동쪽으로 멀리 떨어진 지점으로서 항파두성 주변에 비하여 저항이 약할 수 밖에 없는 곳이다. 중군이 멀리 외곽에서 상륙 지점을 선택한 것은 삼별초 지휘부의 직접 공격보다도 일단 공격군을 外護하면서 제주를 전체적으로 제압하여 상황에 따른 임기응변을 쉽게 하려는 전략이었다고 보겠다. 김방경 등이 지휘하는 이들 중군은 삼별초군의 방어에 부딪치는 하였지만 월등 우세한 군사력으로 이를 곧 돌파 하였다.⁴⁷⁾ 이로써 제주를 거점으로한 항몽세력의 3년에 걸친 항전은 최후의 붕괴를 맞게 되었던 것이다.

여몽군의 대대적 공격전에 대하여 제주 삼별초의 항몽세력은 너무 무력하게 좌절된 것처럼 보이지만, 당시 삼별초 측의 사정을 소략한 개경측 자료로써 이해하기는 썩 어렵다. 다만 제주의 삼별초는 나름대로 이 대대적인 여몽군의 공세에 대비 하였을 것은 물론이다. 제주 삼별초의 활동 반경 등으로 보아 여몽군의 대공세 작전의 정보는 곧 제주에 전달 되었을 것이기 때문이다. 실제 몽고군의 제주 상륙에 대한 삼별초군의 방어는 중군이 들어온 함덕포에서 다음과 같이 나타난다.

이윽고 풍랑이 멎으므로 중군은 함덕포로 들어갔다. 이에 적(삼별초군)들이 바윗돌(岩石) 사이에 복병을 배치하고 있다가 소리치며 뛰어나와 이들을 막았다. 金方慶이 모든 배를 함께 나가도록 재촉하니 隊正 高世和가 먼저 몸을 던져 적진(삼별초군)에 뛰어 들었고, 사졸들도 기세를 타고 다투어 나아갔다. 장군 羅裕가 정예군을 이끌고 뒤따라 이르러 (삼

47) 김방경의 휘하에는 대장군 韓希愈, 羅裕 등이 참여하였는데 이들은 진도 공함전에서부터의 참전자들이다. (『고려사』104, 한희유전 및 나유전) 이로써 보면 개경측의 주력은 대체로 진도싸움에 투입되었던 병력이었던것 같다.

삼별초군을) 죽이고 잡음이 매우 많았다. (『고려사』 104, 김방경전)

함덕포는 제주로부터 동쪽 31리 지점으로 되어 있어 항파두성과는 비교적 거리가 있는 지역임에도 삼별초군이 해안에 매복하여 그 상륙을 저지하고자 하였다. 중군이 함덕포에 접근한 시기는 새벽이었고, 이로써 보면 삼별초군은 여몽군의 공세에 대비하여 해안의 북안에 광범하게 군사를 배치해놓고 있었던 것이다.

여몽군의 제주도 공함 작전도 실제에 있어서는 그렇게 쉽지 않았던 것 같다. 우선 출정시에는 바람과 풍랑으로 크게 애를 먹었고, 한편으로는 출정군 대오에서의 이탈자도 적지 않았던 것 같다. 이는 원종이

“지난번 탐라를 토벌할 때 서울과 지방의 別抄들 중 도망한 자가 매우 많았기 때문에 징벌하지 않을 수 없어 죄의 輕重에 따라 은을 징수하고 그 田丁을 회수 하였다.” (『고려사』 27, 원종세가 14년 10월)

고한 것에서 그 일단을 엿볼 수 있다.

김방경이 삼별초의 최후 거점인 항파두리성에 입성하여⁴⁸⁾ 항복을 받고 일단 제주 삼별초군의 진압을 공식화한 것은 4월 28일의 일이다.⁴⁹⁾ 영산강 중류의 출정지인 나주 반남현에서의 출정이 4월 9일의 일이라고 볼 때 제주 삼별초에 군사 작전은 대략 20일만에 종료한 셈이 된다. 이들 여몽군이 기상조건으로 인하여 항해 일정이 다소 지연 되었지만 전체 기간이 20일이었다는 것은 제주 상륙 이후 중군의 항파두성 당도에 이르기까지가 앞의 전황 기록에서 암시하는 것처럼 그렇게 단숨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었음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보아 제주에서 삼별초군의 저항전은 여몽군의 공세에 압도되었던 것 같다.

항파두성의 함락에 직면하여 삼별초 세력의 지휘부는 둘로 갈리었다. 그리하여 金通精을 중심으로한 반몽파 70여 명은 성의 배후에

있는 한라산 기슭로 들어가고, 지휘부의 일부세력인 李順恭·曹時適 등은 진압군에 나와 항복 하였다. 성안으로 진입한 김방경군은 삼별초의 지휘부에 있던 金允敍 등 6명을 공개 처형하고 35명은 포로로 하는 한편 항복한 삼별초의 사졸 1,300명을 포로로 붙잡아 귀환 하였다.⁵⁰⁾ 그중 지휘부의 35명은 귀환도중 나주에서 다시 참수 하였다. 그리고 제주도에는 忻都 휘하에 있던 몽고군 5백, 그리고 개경측의 장군 宋甫演, 중랑장 康社臣, 尹衡으로 京軍 8백에 外別抄 2백 등 여몽군 1천 5백을 잔류케하여 삼별초 잔여 세력의 추궁 및 치안 유지 등에 당하게 하였다. 윤 6월 耽羅 留鎮將軍 宋甫演으로부터의 보고는 제주 삼별초의 지도자 김통정의 屍身을 확인 하였다는 것이었다. 그리고 항파두성 함락 직전 함께 빠져 나갔던 삼별초 지휘부의 장군 金革正, 李奇 등 70여 명을 역시 수색 체포하였는데 이들은 몽고군의 洪茶丘에 보내져 처단 되었다.⁵¹⁾ 측근들과 함께 한라산 기슭로 피신 하였던 김통정은 자신에 대한 포위망이 점차 좁혀오자 재기의 가능성이 없음을 알고 스스로 목을 매어 자결하고 말았다.⁵²⁾

한편 제주 삼별초에 대한 전공으로 개경측의 김방경은 시중에 임명되고, 邊胤은 判樞密院使, 金錫⁵³⁾은 상장군 知御史臺事, 그리고 羅裕와 송보연은 대장군에 승진 하였다. 동시에 몽고(원)는 제주에 達

48) 제주의 삼별초군이 항복한 성은 『고려사』 김방경전에서는 ‘子城’이라 하였다. 이것은 항파두리성의 내성을 지칭하는 것이 틀림 없는데, 이때 김방경군이 외성을 넘어 다시 ‘子城’에 도달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 당시 항파두성이 내외 2중으로 되었음을 확인하고 있다.

49) 『고려사』 27, 원종세가 원종 14년 6월 1일 몽고에 보낸 원종의 표문에서, 김방경의 승전 보고를 인용하여 삼별초 평정의 시점을 4월 28일로 말하고 있다.

50) 『고려사』 104, 김방경전에 의함. 단, 처형된 삼별초의 金允敍 등 6인에 대하여는 『고려사』 27, 원종세가 14년 4월 경술에 ‘金元允 등 6인’이라 하였음.

51) 『고려사』 27, 원종세가 14년 윤6월 병진

魯花赤을 파견함으로써 제주에 대한 직접 관리를 시작 하였다.

Ⅶ. 삼별초 제주 항전의 성격

1273년(원종 14) 4월 제주 삼별초군의 붕괴는 40년 항몽전쟁의 최후 종식을 의미하는 것이었으며 몽고(원)에 의한 고려 지배가 더욱 가속화되는 계기가 되었다.

제주 삼별초군은 여몽 연합군의 공격을 받아 나름대로의 저항전을 전개 하였지만 그것은 연합군이 나주를 출발한 것으로부터 계산하여 20일 정도였다. 이것은 연합군의 입장에서도 예상 이상의 진도였던 것 같다. 3년을 끌었던 제주의 삼별초군이 예상보다 단순하게 붕괴된 이유가 어디에 있었는지가 궁금한 문제이다.

우선 제주 삼별초의 군사력은 규모 면에서 진도에 비하여 꺾 약화된 것으로 추측된다. 진도 공합시 병력의 다수가 전사 하였을 뿐만

52) 김통정의 죽음에 대해서는 『원사』에 “茶丘與欣都 率兵渡海 擊破耽羅 獲通精殺之 悉免其脅從者”(154, 흥복원전), 혹은 “攻拔耽羅城 擒金通精等 奉詔誅之”(208, 고려전)라하여 김통정이 몽고군에 의해 체포 처단된 것처럼 되어 있으나, 이는 삼별초 잔여세력 처리에 대한 개괄적 설명으로 간주해야 될 것이다. 이점, 『고려사』 130, 배중손전에 ‘縊死’라 명기 되어 있다.

53) 圓鑑國師 沖止가 제주 삼별초 토벌군으로 파견된 知兵馬使 金碩에게 보낸 詩, 「寄知兵馬金尙書碩(公時方討賊於耽羅)」(『圓鑑國師集』 108)에

萬騎가 거둬와 해변을 진압하니	萬騎重來鎮海涯
威風은 먼저 제주를 향해 달리네	威風先向橋州馳
채찍 한번으로 오랑캐(삼별초)를 칠 수 있거늘	一鞭尙可答蠻越
작은도적(삼별초) 사나와도 문제될 것 없네”	小寇雖狂不足疑

라 하였는데 이 시의 수신자인 金碩이 바로 제주 논공으로 상장군 지어사대에 임명된 金錫이라고 판단된다. 김석은 진도공합시 우군을 지휘하여 진도 東面으로 진입, 공을 세운 바 있다. 위의 시가운데 “萬騎重來 鎮海涯”라하여 ‘重來’라한 것은 그가 진도전투에 이어 제주 공성전에 재투입 되었던 사실을 설명해 준다.

아니라 남녀 1만 여가 포로로 잡혔기 때문이다. 진도 싸움에서 여몽군에 잡힌 삼별초 세력이 1만 여였던 것에 비하여 제주 공함시 포로가 1천 3백이었다는 것도 제주 삼별초 세력의 규모가 진도에 비해 훨씬 축소 되었으리라는 것을 짐작케 한다. 이같은 측면에서 생각하면 제주에 입거한 삼별초 세력이 거의 1년간 본토에 대한 활동을 전개하지 못하였던 것, 개경에서 파견한 초유사에 대하여 진도 때와는 대조적으로 경직된 강경 일변도였던 것도 이같은 내부적 취약성과 관련이 있었던 것 같다. 따라서 여몽군의 제주 대공세에 대하여 삼별초 세력의 저항이 일정한 한계가 있었던 것은 일차적으로 방어 병력의 전력과 규모면에서 충분하지 못하였던 때문으로 생각된다.

다음 지리적 측면에서 볼 때 제주도는 본토로부터 멀리 떨어진 大洋에 위치하고 있다는 점에서 본토에서 선불리 공격을 단행하기 어렵다는 이점이 있다. 이러한 제주도의 지리적 이점이 삼별초의 항전을 보다 장기화하는데 도움을 주었으리라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그러나 일단 대규모 전함을 동원한 치밀한 공격이 개시된 경우 제주도의 방어는 방어 지역이 비교적 광범하게 걸친다는 점에서 단순하지 않았을 것으로 생각된다. 특히 진도 때에 비하여 군사력의 규모가 축소된 상황에서 방어선이 보다 광범하게 형성되는 것은 수비에 어려움을 가중시켰을 것이다. 삼별초는 여몽군의 공세가 시작되면서 본토에 대한 전진기지 성격을 갖는 추자도를 곧 포기한 것 같거니와 이 역시 戰線을 가능한한 축소시키지 않으면 안되는 삼별초의 사정 때문이었리라 생각된다.

한편 삼별초에 대한 여몽군의 공세는 사전 충분히 계산된 작전이였다. 특히 이들은 이미 진도에서의 승전 경험을 가지고 이를 바탕으로 제주 공격에 임하였으며 전술적으로도 진도싸움에서의 勝因을 충분히 활용하였던 것 같다. 가령 무기면에 있어서 진도에서 결정적 시점에서의 화약무기의 투입이 크게 효과를 발휘하였거니와, 신무기인 화약무기는 항파두성의 공격에서도 역시 위력을 발휘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앞에서 인용한 『고려사』 김방경전의 기록중에

관군이 외성을 넘어 들어가 火矢 4발을 쏘니 그 연기와 불꽃이 하늘에 가득차으며 적(삼별초)의 무리가 큰 혼란에 빠졌다.

고 한것은 진도에서의 경우에 비추어 보더라도 몽고군에 의한 화약 무기의 사용을 기록한 것이라 생각된다. 여기에서 화약무기를 지칭 하는듯한 ‘火矢’에 대해서 주목해 보면, 무기의 사용 시점이 내성을 포위한 결정적 시점이라는 점, 4발이라는 매우 제한된 그리고 분명한 수량이 나타나 있는 점, 성능의 측면에서 연기와 화염이 衝天한 것을 볼 수 있으며 삼별초가 크게 혼란에 빠지는 효과의 측면에서 볼 때 이 ‘火矢’가 단순한 재래무기였을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이미 몽고군에 의한 화약무기는 진도 싸움에서 의도적으로 투입 되었으며 기대에 부응하는 효과가 있었다는 점에서⁵⁴⁾ 항파두성에서 유사한 무기가 동원 되었을 것은 의심의 여지가 거의 없다.

제주 삼별초의 군사적 취약성에 대하여 몇가지를 위와 같이 언급 하였지만 제주 삼별초는 정신적 측면에서도 진도시대보다 어려운 상황이었음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는 제주 입거 이후 진도시대와는 구별되는 삼별초세력의 성격 변화와 관련된 문제이기도 하다. 1270년부터 1273년까지 4년에 걸친 삼별초의 대몽항쟁은 1271년 5월을 경계로 진도시대와 제주도시대로 나누어지거니와⁵⁵⁾, 이러한 구분은

54) 진도싸움에서 몽고군이 신무기인 화약무기를 사용한 사실은 『원고려기사』 등에 의하여 확인되며 김상기(1948) 선생이 이미 이같은 사실을 주목 하였다. 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윤용혁(1994c) 참조.

55) 삼별초 항전에 대하여 진도시대를 전기로, 제주 입거 이후를 후기로 파악 하는 것은 이미 김상기(1948)에서 잘 정리 되어 있다. 씨는 이와 관련, 전기와 후기는 “서로 계속적인 것으로서 그들의 목표와 동향에는 하등의 변화를 찾아보기 어려우나 체계상으로 또는 세력상으로 보면 후기에 이르러서는 벌써 삼별초의 위세는 昔日의 觀을 잃게된 것”(p. 159)이라 하고, “진도합락은 삼별초로 하여금 정치적 성능을 잃게한 중대한 사건”(p. 190)이었다고 파악 하고 있다.

거점의 이동이라는 단순히 지리적 측면 이상의 차이가 개재한다. 따라서 삼별초의 대몽항쟁을 파악하는 데 있어서는 전, 후기의 시기에 따른 차이와 변화를 반드시 고려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삼별초의 전, 후기간 차이로서 우선 주목해야 할 것은 집단 내부의 동질성 유지에 관한 문제이다. 진도시대의 경우 상대적으로 광범한 계층과 집단을 포괄 하였지만, 그중에는 개인 의사에 반하여 강화도로부터 강제로 데려온 자들이 적지 않은 듯하고 환도한 개경의 가족들도 다수 끌어왔기 때문에 다분히 이질적 집단을 포괄하고 있었던 것이다. 여기에 항전의 기본 정책상 강, 은의 異見이 지도부 내에 공존할 수 밖에 없었다. 이같은 내적 다양성이 진도에 대한 몽고군의 공세에 즈음하여 방어상의 취약성으로 작용 하였다고 생각 되거니와,⁵⁶⁾ 삼별초의 제주 입거는 진도에서 포괄했던 이질집단 뿐만 아니라 몽고에 대한 온건론의 입지까지도 완전 배제함으로써 그 내부성향을 강경한 방향으로 단일화 내지 단순화 시켰던 것이다.⁵⁷⁾ 이같은 내부 성향의 단순화는 집단의 유지에는 분명 효율적이었을 것이나 정치적 영향력이라는 측면에서는 본질적인 한계성이 되었던 것이다.

56) 진도 삼별초 정권의 이같은 이질성 내지 혼잡성에 대해서는 윤용혁 (1994c:290-292) 참고. 특히 원종대의 장군으로 강화도에서 탈주하다 삼별초에 잡혀온 金之淑의 경우는 진도 삼별초 정권의 취약성을 단적으로 입증한다. 그는 삼별초에 붙들려 죽을뻔 하였으나 승화후 은에 의하여 목숨을 건지고 진도정권에서 관직을 받았다. 그러나 그는 끝까지 삼별초 정권에 대하여 심복하지 못하였고 진도의 내부 사정을 “두차례나 판군에게 비밀히 알려주었다”는 것이다. (『고려사』 108, 金之淑傳)

57) 전, 후기 삼별초의 이같은 집단내부의 성격 차에 대해서는 村井章介(1982:46)에서 “진도의 패배는 동요분자를 탈락시킴으로써 도리어 반란군을 보다 순수한 반몽·반정부 세력으로 침체화시킨 결과를 낳았다”라고 하여 그 차이가 주목된 바 있다.

삼별초 항전의 진도시대와 제주시대의 가장 큰 차이는 양자간의 정치적 위상의 차이라고 생각된다. 진도시대의 경우 삼별초는 고려의 정통정부를 자처하며 고려왕족으로 황제를 옹립함으로써 개경의 부몽정권에 대한 반몽정권으로서의 입지를 나름대로 확보하고 있었다. 진도시대 일본에 대한 외교적 연결을 시도한 것도 진도정부의 이같은 측면에 뒷받침되어 가능 하였으며 한편 제한적이거나 본토와의 연결성은 본토 여러 지역민으로부터의 호응을 가능하게 하였던 것이다. 진도정부가 항몽정권으로서의 명분을 나름대로 확보하고 있었던 데 반하여, 제주 입거 이후, 삼별초는 투철한 반몽의지에도 불구하고 이를 현실적으로 뒷받침할만한 구조를 확보하지 못하였다. 우선 왕(황제)을 상실함으로써 정통정부를 자처할만한 명분을 잃게 되었으며, 이에 따라 정부적 성격보다는 하나의 세력집단으로서 그 정치적 위상이 낮추어졌다는 것이다. 제주시대 삼별초의 정치적 위상의 약화는 군사력의 문제 이상으로 삼별초 세력을 약화시키는 근본 요인이었을 것으로 파악된다.

VII. 삼별초와 濟州民

제주 삼별초의 성격 문제와 관련하여 마지막으로 주의하고 싶은 한가지 문제는 삼별초군과 제주 토착세력과의 관계에 관한 문제이다. 진도정부하 삼별초군이 제주도에 처음 진입한 것은 원종 11년(1270) 11월의 일이었다. 당시 제주도에는 개경정부에서 파견된 안찰사 權단, 영암부사 金須를 비롯하여 장군 高汝霖 등이 방어에 임하고 있었는데, 李文京이 지휘하는 삼별초군에 의하여 진멸됨으로써 제주도는 진도의 배후 거점이 되었던 것이다.⁵⁸⁾ 이 때 개경측 방어군의 패배는 제주 토착민의 움직임이 결정적이었다.

58) 『고려사절요』 18, 원종 11년 11월

이에 (金須, 高汝霖 등이) 주야로 城堡를 쌓고 兵器를 설치하여 (삼별초 군이) 올만한 길을 막아 방어하고자 하였으나 토착민(守土者)들이 요모조모 협조하지 않았기 때문에 賊(삼별초)이 다른 길로 이른 것을 알아채지 못하였다. 시중(김수)이 평소 大義로써 사졸들을 지휘 하였기 때문에 이들이 모두 감격하여 용기 백배 다투어 싸움으로써 적(삼별초)의 선봉을 거의 죽였다. 그러나 토착민(土人)들이 적(삼별초)을 뒷받침 하였으므로 중과부적이 되었고 마침내 高將軍과 함께 전사 하고 말았다. (崔濯 『拙叢千百』 1, 「金文正公墓誌」)

이에 의하면 삼별초군의 공격을 예상, 개경측은 나름대로 진력 하였지만 제주민의 협조를 얻는데 실패 하였고, 제주민이 도리어 삼별초군을 도움으로써 전세를 결정 했던 것이다. 말하자면 원종 11년 진도의 삼별초군이 제주를 공함하는 데 성공한 것은 제주민의 도움 때문이었다. 이같은 사실에 근거할 때 제주 항전시기의 삼별초군이 현지의 지방민들로부터 적극적 지원과 호응을 받았으리라는 추측이 가능하다(李貞信 1991:153-154). 필자는 기본적으로 이같은 개연성에 동의하면서도 그러나 바로 이 문제, 제주 항전시기 삼별초와 제주민들의 관계는 반드시 그렇게 단순히 정리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었을 것으로 생각한다.

제주도는 본토로부터 멀리 떨어진 지리적 여건으로 인하여 역사적 전통에서나 생활습속 등에 있어서 오래도록 독자성을 유지해온 지역이었다. 제주 지역에 중앙정부의 통제력이 보다 구체적으로 미치게 되는 것은 대략 12세기 경으로 생각된다. 제주가 고려의 군현체계에 편입된 것은 아마 숙종 10년(1105)의 일인 것같고,⁵⁹⁾ 12세기 후반

59) 고려 중앙정부와 제주와의 관계에 대해서는 『고려사』 57, 지리지 2, 耽羅縣조에 개국 초인 太祖 21년에 '탐라국'의 태자 末老가 來朝하여 屋主와 王子의 작위를 내린 후, 숙종 10년에 가서 "改托羅爲耽羅郡"이라 하였다. 제주의 고려 중앙권력에의 편입 과정에 대해서는 高昌錫(1982) 참조.

毅宗朝에 縣으로 낮추어지면서 현령관이 파견 되었다. 그리고 熙宗 7년(1211) 島内の 石淺村을 ‘歸德縣’이라는 매우 의도성 있는 이름의 縣으로 삼았다. 의종조 현령의 파견은 아마 제주에 대한 최초 지방관 파견으로 보이며, 이후 중앙 권력 침투의 일정한 진전에 의하여 13세기 초에 추가로 歸德縣이 설치된 것 같다.⁶⁰⁾ 12세기 이후 고려 중앙정부의 권력이 제주에 미치면서 중앙으로부터의 통제력과 제주민의 사이에는 적지 않은 갈등이 축적 되었다. 가령 명종 16년(1186) 7월에는 제주민이 반역 하였다는 정보가 들어왔다. 크게 놀란 왕이 按撫使 등을 급히 파견하고 현령과 縣尉의 책임을 물어 중벌 하였다.⁶¹⁾ 확인 결과 반역 정보는 사실이 아님이 드러났으나 전후 상황으로 보아 중앙 권력과의 일정한 갈등이 이미 문제로 인식되고 있었음을 암시한다. 神宗 5년(1202) 10월 제주민 煩石, 煩守 등이 난을 일으켰다. 정부는 少府少監 張允文을 탐라안무사에 임명, 중앙장 李唐績과 함께 제주에 보내 주모자를 처단함으로써 사태를 수습 하였다.⁶²⁾

이들이란을 일으킨 구체적 동기는 나타나 있지 않다. 그러나 그 후의 기록에

제주도의 옛풍속에 15세 이상의 남자는 매년 콩 1斛을 바치고 衙門의 아전 수 백명은 매년 말 한 필씩을 바쳤다. 이를 부사와 판관이 거두어 나눠 가지니, 이 때문에 이 고을을 다스리는 자는 가난한 자라도 모두 부자가 되었다. (『고려사절요』 17, 고종 46년 10월)

判禮賓省事 羅得璜을 濟州副使로 삼았다. 이에 앞서 宋佖가 제주의 수령으로 있다가 재물을 탐하여 면직 되었는데 사람들이 말하기를 “제주가

60) 『고려사』 8, 문종세가 12년 8월의 기록을 참고하면 지방관의 파견 이전에 도 伐木 등 제주도에 경제적 징구가 필요에 따라 자행 되었던 것 같다.

61) 『고려사절요』 13, 명종 16년 7월

62) 『고려사절요』 14, 신종5년 10월 및 12월

전에는 작은 도둑을 겪었는데 지금은 큰도둑을 만났다”고 하였다. (『고려사절요』 18, 원종 원년 정월)

고 한 것이나, “제주에서 말을 바치니 4품 이상에게 나누어 주었다”⁶³⁾ 고 한 것에서 보면公私間의 과중한徵求是 제주민에게 커다란 경제적 부담과 함께 정신적 어려움을 주었다고 생각된다. 원종 8년(1267)에 일어난文幸奴의 란은 이같은 제주의 악화된 사회경제적 여건을 반영하는 사건이었다.

원종 8년⁶⁴⁾ 제주 문행노의 란에 대한 자세한 전말이나 규모, 봉기의 직접적 동기 등에 대해서는 잘 알 수 없으나 이들은 봉기후 제주 서쪽 6리 지점의 ‘長坪’이라는 곳에서 제주부사 崔托, 그리고 屋主 梁浩가 이끈 官側 군대에 의하여 평정되고 말았다. 문행노에 대하여 ‘草賊’이라 한 것을 보면 이들은 일반화된 관의 경제적 탐학 등으로 사회경제적으로 영락해버린 집단이었다. 그러나 이들의 저항은 제주 성주의 권위를 이용한 관의 군사력에 의하여 무산 되었던 것이다.⁶⁵⁾

원종 8년 문행노의 란에서 보듯 제주민과 중앙 권력과의 관계는 과견된 지방관의 탐학이나 過徵으로 악화 되었으며 원종 11년 김수, 고여림 등 개경측의 제주 수비군에 대하여 제주민이 노골적으로 不服하고 삼별초군의 진입에 호응한 연유를 이러한 맥락에서 선명하게 이해할 수 있게 된다.⁶⁶⁾

63) 『고려사절요』 18, 원종 원년 7월

64) 제주 문행노의 란에 대해서는 『고려사』 등에 언급이 없으나 『동국여지승람』 38, 제주목 고적조에 원종년간의 사건으로 되어 있으며 제주읍지인 金錫翼의 『耽羅紀年』이나 李元翼의 『耽羅志』에서 “원종 8년(봄)”으로 명시되어 있다.

65) 문행노의 란에 대해서는 李貞信(1991:149) 참조.

66) 삼별초 이전, 12, 3세기에 있어서 중앙 권력과 제주민의 갈등상에 대해서는 앞의 李貞信(1991:137~147) 참조.

이상과 같은 배경에 비추어 원종 12년 제주를 새로운 거점으로 하게 된 삼별초 세력의 제주 토착민과의 관계가 어떠 하였을가는 삼별초 항전의 성격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도 꼭 중요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우선 삼별초군의 제주 장악은 제주에 대한 기존 식민적 통제 권력의 撤退를 가져왔다는 점에서 극히 고무적 사건이었을 것임이 틀림없다. 이점은 이문경의 삼별초군이 원종 11년 처음 제주에 진입 하였을 때 분명하게 드러났다. 그러나 이듬해 원종 12년 진도를 상실한 삼별초의 주세력이 제주에 한꺼번에 밀려들어 옴으로써 제주민과 삼별초와의 관계는 보다 복잡성을 띠지 않을 수 없게 된다. 강력한 군사력을 수반한 대집단의 돌연한 출현이 제주민에게 커다란 긴장감과 生硬感을 안겨 주었으리라는 것은 충분히 상상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이다.

결론부터 말하면 제주시대 삼별초와 제주민의 관계는 원종 11년李文京의 珍島軍이 받았던 절대적 호응의 연장선에서는 생각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점에 있어서 필자는 제주민의 삼별초에 대한 관계가 긴장적 협조 내지 소극적 협조의 수준이었을 것으로 생각한다. 원종 11년의 경우 개경측 제주 수비군에 대하여 이들을 격멸한다는 삼별초와 제주민의 일차적 의도는 전적으로 서로 일치 하였다. 말하자면 반개경정부라는 입장에 있어서 두 집단은 일정한 동의가 가능 하였다. 그러나 반몽이라는 측면에 있어서는 이들 두 집단의 역사적 경험은 서로 달랐다는 사실을 간과할 수는 없을 것이다.

삼별초는 이미 40년 대몽항쟁의 어려운 고비들을 넘어오며 가장 강력한 반몽세력의 핵심집단으로서 성격이 역사적으로 굳어진 집단이다. 더우기 이들은 몽고와 그에 복속한 개경정권에 정면으로 반기를 들고 강화도로부터 진도로, 그리고 치열한 전투를 치른 후 다시 제주도에게까지 이르러 그야말로 선택의 여지가 없는 결사 항전의 상태에 있었다. 이들의 항전 대상은 일차적으로는 개경정권이지만 보다 근본적으로는 몽고였다. 이에 비하여 제주민은 아직 몽고로부터의 직접적 피해 경험이나 전쟁의 경험을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삼별초의 대몽항전은 어떤 점에서 제주민에게 局外者的 입장이 되기도 한다. 이같은 양자간의 차이는 여몽군의 삼별초에 대한 대공세가 개시 되었을 때, 제주민으로 하여금 삼별초와 그 운명을 전적으로 같이하기는 어려운 요인이 되었을 것이다.

여몽군은 항파두리성을 공함한 원종 14년 4월, 삼별초 잔여세력의 처리 및 향후의 지배력 확보를 위하여 1천 5백만을 남기고 대부분이 철수하였다. 이들이 포로를 데리고 제주에서 철수하면서는 “원래 탐라에 살던 자들은 옛날처럼 안심하고 살게 하였다”⁶⁷⁾고 한다. 삼별초와 제주민을 이처럼 분명하게 구분하여 조치할 수 있었던 것은 그 활동에 있어서 삼별초와 제주민이 어느정도 구분 되었기 때문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6월 이들 잔류 여몽군은 散走한 삼별초의 잔여 지도세력을 수색하여 70여 명을 체포 하였고 그 과정에서 지도자 김통정은 결국 자결하고 말았다. 이들은 필시 깊은 산중으로 숨었을 것이므로 그 수색에는 현지 주민의 도움 없이는 가능하지 않은 일이었다. 이러한 것을 보면 삼별초와 제주민이 일치하여 여몽군에 대항 하였다고 보기는 껍 어렵다.

제주에 입거한 삼별초는 제주민과의 관계 형성에 일정한 주의를 요하게 된다. 진도의 경우는 섬이 작고 삼별초의 규모가 상대적으로 매우 거대 하였기 때문에 이것이 문제될 것이 별로 없지만 제주의 경우는 사정이 같지 않았다. 군사력의 측면에서는 島內를 압도할 수 있었겠지만 주민들의 협조 없이는 몽고군과의 對戰 상황에서 결정적으로 불리해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들 간에는 일정한 상호간의 타협이 불가피해진다. 가령 제주의 전통적 지도자인 屋主·王子를 비롯한 토착 지배집단의 권위를 삼별초가 보호함으로써 전통 지배집단의 협조를 반대 급부로 되돌려 받는 타협이 그것이다. 개경측이 김통정을 회유하기 위한 방책으로 친척인 金永(贊) 등을 파견, 설유코자

67) 『고려사』27, 원종세가 14년 4월 경술

하였을 때 이에 대한 삼별초의 반응을 “通精與本國星主等 不從”⁶⁸⁾이라 하였다는 것도 김통정과 탐라성주가 밀접한 상호 연대를 형성하고 있었음을 암시하고 있다.

필자는 삼별초가 그 거점을 제주의 정치 거점에서 떨어진 항과두리에 설정한 것도 제주 성주와의 상호 연대와 얼마간 관련이 있지 않는가 생각한다.

탐라국의 가장 강력한 정치집단 근거지, 즉 탐라 屋主의 근거 지역은 현재 제주시를 중심으로한 지역이었을 것으로 추측된다. 이는 三姓穴과 같은 탐라국의 개국과 연결되는 전설적 유적이 제주시에 있고, 동시에 여기에는 청동기 시대의 고인돌과 같은 史前 유적이 풍부하게 분포함으로써 그 역사적 내지 정치적 중심성을 입증하고 있기 때문이다.⁶⁹⁾ 한편 탐라를 고려의 한 군현으로 편입한 후 파견된 수령이 제주 행정을 관할 했던 곳도 제주시였던 것 같다. 이는 후대인 조선조의 경우 제주목 관아가 제주시에 설정되어 있었던 것에서 유추할 수 있고, 삼별초 입거에 즈음한 시기, 특히 원종 11년 진도 삼별초李文京軍의 작전 경로 등을 통하여서도 약간의 단서를 얻을 수 있다. 다시 말해서 개경정부의 제주민에 대한 정책은 다분히 통제 관리적 측면이 강조 되었고 그 일단이 제주의 전통 지배집단의 거점에 곧 행정 치소를 설정함으로써 전통적 권위를 일단 부인 하였던 것이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삼별초가 절대적으로 우세한 군사력을 보유하면서도 그 거점을 제주시에서 일정하게 떨어진 지점에 설정

68) 『元高麗紀事』 至元 10년

69) 제주시에는 청동기시대 고인돌 유적만 22개소가 보고 되고 있다. 여기에 중국과의 교류를 설명하는 漢代의 화폐, 동경 등의 유물이 발견됨으로써 상고시대 제주도의 중심이 오늘의 제주시였음을 입증하고 있다. 이에 대해서는 제주대 박물관(1992:26~67) 참조.

하였다는 것은 특별한 이유가 있었을 것이다. 일차적으로는 본토로부터의 공격을 방어하는데 있어서 해안의 제주도 지역보다는 자연적 지세를 의존할 수 있는 내륙쪽이 군사적으로 유리하였을 것이다. 그러나 여기에는 제주 전통 지배세력과의 갈등을 완화하고자 하는 정치적 고려가 함께 있었던 것이 아닐까 생각하게 되는 것이다. 삼별초가 원종 11년(1270) 처음 제주를 점거한 후 원종 14년(1273)까지 제주를 거점으로 제한적이거나 나름대로 활동적인 항전이 가능하였던 것은 바로 제주민들과의 일정한 연계와 타협에 의하여 가능하였을 것이라 생각된다.

요컨대 삼별초는 원종 11년 개경측 수비군을 몰아내고 제주에 진입 하였을 때 제주민의 적극적 호응을 받았고, 다음해 진도에서 철수한 삼별초군이 대거 제주에 입거한 후로는 제주의 전통 지배세력과의 일정한 타협과 연계 속에서 활동을 지속할 수 있었다. 이것은 제주민과 삼별초 상호간에 반개경정권이라는 공통적 입지에 의하여 가능한 것이었지만, 반면 반몽이라는 측면에서는 역사적 경험이 서로 달랐기 때문에 삼별초 반몽항전에 있어서 제주민과의 전적인 일체성은 기대하기 어려웠으리라는 것이다.

VIII. 맺는 말

고려 원종년간, 1270년에서 1273년까지 한반도의 남부 연안, 그리고 제주도를 거점으로 전개된 삼별초의 항전은 40년 고려 대몽항쟁의 최후를 장식한 집단적 저항이었다. 이들은 고려정부가 몽고에 복속한 상황을 거부하고 독자정부를 수립, 지속적 항전을 전개 하였다. 그리하여 이들 삼별초 세력은 대내외적으로 반개경정부, 그리고 반몽고의 성격을 분명하게 표방했던 것이다.

제주에서의 삼별초의 항전은 1271년부터이지만 반몽거점으로서의 제주의 중요성은 이미 10여년전부터 주목되었다. 그것은 강화도에서

의 항전에 한계를 느끼게 된 무인정권에 의한 것이었다. 그리고 몽고는 삼별초의 거점이 된 제주도가 향후 군사행동의 중점지역이 될 고려·남송·일본을 연결하는 요충이라는 점에 대하여 주목하였다.

제주의 삼별초군은 제주 서쪽 해변에서 약간 떨어진 지역에 내외 2중의 성을 쌓아 항전 거점을 마련 하였으며, 제주도 방어를 위하여 해안을 둘러싼 3백 여리의 長城을 축조하기도 하였다. 아마 진도에서의 실패를 교훈삼아 방어 시설 구축에 더욱 진력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데 이같은 방어시설은 일면 강도에서의 내, 중, 외 3중성을 연상시키는 것이기도 하다. 다만 삼별초가 쌓은 '內外城'의 실제 내용에 대해서는 좀더 정확히 구명되어야 할 점이 있음을 지적하였다.

제주 입거의 반몽세력은 그 규모면에서 진도시기보다 꺾 약화 되었던 것 같다. 게다가 내부 조직 정비와 방어 시설 구축 등의 현안이 시급 하였기 때문에 처음 1년간 이들의 활동은 거의 눈에 띄지 않는다. 그리고 이듬해부터의 활동상은 단계적으로 그 활동 영역을 확대시켜 갔음이 확인된다. 즉 1단계는 삼별초의 이전 근거지였던 전라도 연안 일대, 2단계는 충청, 경기의 서해 연해까지 확대되고 마지막으로 경상도 연해까지 활동 범위가 확대되고 있다. 경상도 연해지역 진출이 늦는 것은 몽고군의 이 지역 주둔 때문이었을 것이다. 그러나 이같은 활동 범위의 확대에도 불구하고 삼별초 반몽세력이 내륙에서 멀리 떨어진 제주도를 거점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반몽항전의 근본적인 한계성을 면할 수가 없었다.

삼별초의 대몽항전은 진도 거점 시기와 제주 거점시기 사이에 거점의 이동이라는 지리적 차이 이상의 보다 심각한 성격적 차이가 개재하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삼별초의 항전은 전기, 후기로 구분하여 그 성격을 파악해야 할 것 같다. 우선 집단 내부의 성격에 있어서 진도시대에는 삼별초의 반몽, 반개경주의에 대하여 적극적 동조가 어려운 이질집단이 다수 포괄 되었고 이점이 항전책의 전개에 있어서도 強穩의 異見과 다양성을 불가피하게 하였다. 반면 삼별초의 제주 입거는 대몽항전 방식에 있어서 온건론의 입지를 완전 배제한 것이

었으며 내부성향의 단일화를 가져왔다. 이같은 결과는 집단의 조직 유지에는 효율적인 것이었으나 정치적 영향력이라는 측면에서는 후퇴된 것이었다.

제주 거점의 삼별초는 반개경이라는 점에서 제주민과 전적으로 의식을 같이 할 수 있었으나 반몽이라는 점에서는 그 感度에 일정한 차이가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이 점 반몽항전과 진도 공함을 경험한 삼별초 세력과 몽고와의 직접적 접촉을 거의 갖지 못한 양자의 역사적 경험차에 기인하는 것이다. 삼별초 세력은 제주민과의 관계를 의식, 성주, 왕자를 정점으로 하는 제주의 전통적 지배구조와 일정한 타협을 감수 하였고, 이로써 진도시대에 볼 수 있었던 독립정권으로서의 성격은 약화 되었다.

삼별초의 제주 항전은 40년을 끌어온 고려 대몽항쟁의 최후 항전이었다. 그 지리적 위치가 더 이상 갈 수 없는 고려의 영토 끝 제주라는 점이 매우 암시적이기도 하다. 이제 반몽세력 집단이 일거에 제거됨으로써 고려의 향후 역사는 침략 세력 몽고의 간섭을 그대로 수용하는 왜곡된 구조와 그늘진 상황으로 이어지는 것이다.

참 고 문 헌

－ 자 료

- 金錫翼 『耽羅紀年』.
 金正浩 1864 『大東地誌』.
 金宗瑞 1452 『高麗史節要』.

- 文道希 1917 『元高麗紀事』, 上海.
 宋 懔 『元史』.
 李元翼 1652 『耽羅志』.
 李 荇 1530 『新增東國輿地勝覽』.
 鄭麟趾 1451 『高麗史』.
 崔 濬 『拙叢千百』.
 沖 止 1680 『圓鑑國師集』(秦星圭 역, 아세아문화사, 1988).
 조선후기 『輿地圖書』(국사편찬위원회, 1973)

— 논 저

강창언

- 1991 “제주도의 環海長城 연구”, 『탐라문화』 11, 제주대학교 탐라
 문화연구소.

高昌錫

- 1982 “탐라의 郡縣에 대한 고찰”, 『제주대논문집』 14, 제주대학교
 1984 “麗元和 耽羅와의 관계”, 『제주대논문집』 17, 제주대학교

高昌錫·姜彰彦

- 1989 “禾北洞 유적의 史的 고찰”, 『탐라문화』 8, 제주대학교 탐라
 문화연구소.

金庠基

- 1948 “三別抄와 그의 亂에 대하여”, 『동방문화교류사논고』, 을유
 문화사.

金潤坤

- 1981 “삼별초의 대몽항전과 地方郡顯民”, 『東洋文化』 20·21 합
 집, 영남 대학교 동양문화연구소.

羅鍾宇

- 1986 “고려 무인정권의 몰락과 삼별초의 遷都抗蒙”, 『圓光史學』
 4, 원광 대학교 사학회.

柳永哲

1994 “『高麗牒狀不審條條』의 재검토” 『한국중세사연구』 창간호.

尹龍嫻

1991 『고려 對蒙抗爭史 연구』, 일지사

1994a “삼별초의 蜂起와 南遷에 관하여”, 『李基白教授 고회기념 한국사논총』, 일조각.

1994b “삼별초 珍島政權의 성립과 그 전개”, 『韓國史研究』 84, 한국사연구회.

1994c “삼별초 항몽정권의 珍島 抗戰”, 『朴秉國教授 정년기념 사학논총』, 기념논총간행위원회(공주대 역사교육과).

李貞信

1991 “제주민의 항쟁”, 『고려 무신정권기 농민 천민항쟁 연구』,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제주대학교 박물관

1992 『제주시의 문화유적』.

제주도

1978 『삼별초의 항몽투쟁사』.

石井正敏

1978 “文永八年來日の高麗使について”, 『東京大學史料編纂所報』 12.

池内 宏

1926 “元の世祖と耽羅島”, 『東洋學報』 16-1 (『滿鮮史研究』 中世 제3책, 吉川弘文館, 1963).

1931 『元寇の新研究』, 東洋文庫.

村井章介

1982 “高麗三別抄の叛亂と蒙古襲來前夜の日本(上)”, 『歴史評論』 382.

Henthorn, W. E.

1963 *Korea, the Mongol Invasions*, E. J. Brill, Leiden.

The Resistant Movement of the *Sambyolcho* in Cheju Island (1271–1273)

Yoon, Yong-hyuk
Department of History Education
Kongju National University

This paper is to make clear the characteristic of Sambyolcho's resistant movement for three years in Cheju Island, which was motivated by the Mongol's invasion and the surrender of Koryo Dynasty.

The resistant contingents built the inner wall and the outer wall as well as the long wall along the coast of the Island. Their efforts to enforce the ramparts were tactically related with the military establishments of the Kanghwa Island and seem to have been admonished by the failure as Jindo Island. At first they were thwarted because of their own problems, but soon continued to enlarge their influence and succeeded to rule the western and the southern coastal area of the Korean peninsular for a while.

In comparison with the movement at Jindo Island, there were some differences in the movement of Cheju Island. First of all, their attitude against the Mongolian invaders became so inimical that any compromising opinion was never adopted. This change contributed to the consolidation of the Sambyolcho resistants, but simultaneously weakened greatly their political relationship with the central government. Moreover because of the different historical experiences, the inhabitants did not have the same anti-Mongolian resolution as the Sambyolcho resistants did.